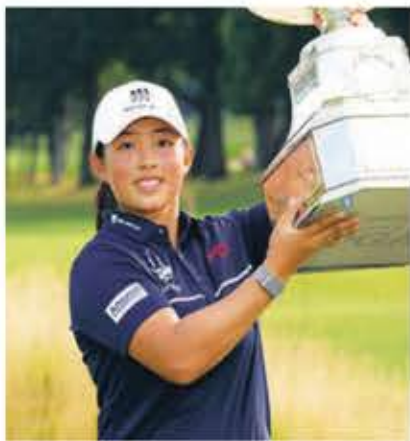


여자 골프 '세계 1위', 올해 역대 최다 5명 등극



▲ 2023 LPGA 투어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한 인뤄닝. 사진=PGA of America

18번째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선수가 나왔다. 20세 중국의 인뤄닝이다.

12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세계랭킹에서 8.11 포인트를 획득한 인뤄닝은 7.98 포인트의 릴리아 부(미국)를 2위로 끌어 내리고 세계 1위 자리에 올랐다.

인뤄닝이 세계랭킹 1위 자리에 오르긴 했지만 그가 현재 세계 최강의 샷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긍정하지는 않을 듯하다. 그의 세계 1위 등극은 때를 잘 만났다고 할 수 있다.

올해 세계 1위 자리에 오른 선수는 인뤄닝까지 모두 5명이다. 지난 해 말 세계 1위 자리에 오른 뉴질랜드 동포 리디아 고를 비롯해 벨리 코다(미국), 고진영(한국), 릴리아 부(미국) 그리고 인뤄닝이 세계 1위 자리를 맞췄다. 이제 9월인데도 벌써 한 해 최

다 세계랭킹 1위 선수가 나온 것이다. 역대 최다 기록은 2022년과 2017년의 4명이었다.

운이 좋은 선수가 있다면 운이 나쁜 선수도 있다. 최고의 선수들이 세계 1위에 올랐던 것은 분명하지만 최고의 기량을 갖추고도 세계 1위 자리를 맞보지 못한 불운의 선수들도 있다.

현재 기량은 최고이면서도 세계랭킹 1위에 오르지 못한 선수 중에는 세계랭킹 6위 김효주(한국)가 있다. 지난 해 4월 롯데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이후 1년 5개월째 우승이 없지만 김효주의 샷은 누구보다 견고하다. 평균 타수 부문에서 1위(69.83타)에 올라 있고 평균 버디도 1위(4.17개)를 기록 중이다. 올해 100% 컷 통과를 하고 있는 두 명 중 한 명이 또 김효주다.

이날 발표에서 세계랭킹 7위에 오른 호주 동포 이민지도 아직 세계 1위 자리에 오르지 못한 톱골퍼다. 생애 상금 순위 11위에 올랐고 지난 해도 세계랭킹 2위까지 올랐지만 결국 세계 1위에는 오르지 못했다.

생애 상금 10위 렉시 톰프슨(26위, 미국)도 최고의 기량을 갖추고도 리디아 고와 고진영은 물론 K골프의 위세에 눌려 세계 1위 자리를 맞보지 못하고 있다. 톰프슨은 2017년은 물론 2018년과 2019년에도 세계랭킹 2위까지 치고 올랐지만 1위 자리까지 등극하지 못하고 순위가 하락했다.

코비에 바친 조코비치의 US오픈 우승



▲ 조코비치가 코비를 기리는 티셔츠를 입고 우승 트로피를 든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UPI연합뉴스

지난 10일 뉴욕 빌리진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시즌 마지막 테니스 메이저대회 US오픈 남자 단식 결승전.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세계 2위)는 다닐 메드베데프(러시아·3위)를 3시간16분 만에 3-0으로 꺾은 뒤 관중석에서 가족 등과 축하 세리머니를 하고 코트에 앉았다. 통산 24번째 그랜드슬램 우승(US오픈 4번, 윌블던 7번, 프랑스오픈 3번, 호주오픈 10번). 남자 테니스 선수로는 누구도 밟아보지 못한 고지다. 남녀 단식 모두 합하면 마거릿 코트(호주·은퇴)와 타이 기록이다.

US오픈 4번째 왕좌에 오른 조코비치는 시상식 전에 웃을 같아입었다. '24'라는 숫자와 함께 2020년 1월 불의의 헬기 사고로 목숨을 잃은 미국프로농구(NBA) 레전드 코비 브라이언트와 함께 찍은 사진이 담긴 티셔츠였다. '맘바'라는 브라이언트의 별명도 함께였다. 브라이언트가 열애 이 레이커스에서 필 당시 등 번호가 24번이었다. 조코비치의 메이저대회 우승 횟수와 같다.

조코비치는 이에 대해 "코비는 나의 친한 친구였다. 내가 힘들었을 때마다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면서 "코비는 24번을 달고 세계 농구의 전설이 됐는데, 그를 다시 상기시킬 수 있는 상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며칠 전 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프로 선수의 대회 출전이 허용된 1968년 이후 24차례나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한 이는 조코비치가 유일하다. 조코비치 다음으로는 서리나 윌리엄스(23차례·미국)

가 가장 많은 메이저대회 우승 트로피를 품었고, 조코비치와 함께 '빅 3'를 이뤘던 라파엘 나달(스페인)은 22차례, 로저 페더러(스위스)는 20차례 그랜드슬램 정상에 섰다.

1987년 5월생의 조코비치는 US오픈 남자 단식 최고령 우승 기록도 세웠다. 올해 조코비치는 윌블던을 제외하고 메이저대회 3개 우승을 모두 차지했다. 윌블던 결승에서만 카를로스 알카라즈(스페인·1위)에 패해 퀸터 그랜드슬램을 놓쳤다.

조코비치는 "7-8살 때는 세계 최고 선수가 되어 윌블던 트로피를 거머쥐는 것만이 유일한 꿈이었다. 그 다음부터 새로운 꿈이 생기고, 새로운 목표가 생겼는데 24차례 그랜드슬램 우승을 할 줄은 몰랐다."며 감격해 했다.

최고의 질병 치료법은 바로 예방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한 심각한 질병 및 감염병 예방에 대해 꿀약국 예방접종센터에 문의하세요.

NOW HIRING
꿀약국에서 함께 일할 직원 (테크니션) 구합니다!



- 꿀약국 예방접종센터** 처방전 필요 없습니다! 예약도 필요 없습니다!
- Shingles(대상포진)
 - Flu(독감)
 - 이민국(USCIS) 필수 예방접종 가능
 - COVID-19 백신 접종 가능
 - Pevnar 13, Pneumovax 23, Pevnar 20(폐렴)
 - Hepatitis A, Hepatitis B(간염)
 - M-M-R(홍역, 볼거리, 풍진)
 - Meningitis(수막염)
 - Tdap(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 Typhoid(장티푸스)
 - HPV-Human Papilloma(인간 유두종)



민로렌 약학박사 / 권엔젤라 약학박사

Tel: 562.403.2332
7002 Moody St. #106, La Palma, CA 90623

Fax: 562.403.2331
Honeyrx123@gmail.com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PPO, HMO 받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환영
Honeyrx